

‘공격’보다 ‘안전’... 높은 금리 적금 찾아라

‘2020 재테크 트렌드’ 자산관리 전문가에 듣는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높은 수익률 원할때 인컴펀드 주목
자유적립식 채권형·주식형·비과세 인덱스 펀드 등 추천

박희연 KEB하나은행 VIP PB팀장
김순희 광주은행 PB센터 부부장

광주·전남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새해에도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인컴형 자산’에 주목하는 등 적극적인 자산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단기 채권 투자를 기본 전략으로 하거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추천했다.

박희연 KEB하나은행 광주지점 VIP PB팀장은 9일 “지난해는 파생결합증권(DLS) 사태로 금융 신뢰가 무너지는 한 해였다”며 “올해 재테크는 기본에 충실하고 ‘쌓아가는 투자수익’을 추구하자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보유만해도 수익을 내는 ‘인컴펀드’를 추천했다. 리츠, 인프라, 고배당주 등 인컴형 자산관리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포괄하고 쌓아가는 투자수익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추천 펀드로는 국공채와 우량 채권 투자로 높은 이자수익을 내거나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상품이나 단기 채권 투자를 기본 전략으로 하되, 일종의 사모펀드인 헤지펀드와 부동산 리츠 등으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를 들었다. 다양한 글로벌 채권 자산에 분산 투자하거나 5개 공모형 헤지펀드에 분산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것도 추천했다. 위험 감수를 꺼리는 투자자에게

? 인컴(Income)형 자산

고배당주, 부동산, 인프라 형태의 자산을 말한다. 일반 주식형 상품에 비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 초저금리 환경에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꾸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인컴 펀드를 들었다.

그는 청약 또는 급여이체를 하면 금리를 우대하는 등 은행별로 높은 금리 적금을 찾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 팀장은 마지막으로 “쓰지 않고 모으는 것이 가장 큰 재테크라는 점을 명심하라”며 “차곡차곡 모으는 적금이 기본이며 기본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순희 광주은행 PB센터 부부장은 자유적립식으로, 최저 가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채권형 펀드나 주식형 펀드를 추천 상품으로 들었다. 김 부부장은 1~2년

정도 가입하며 금리 상승 위험을 제한하며 국내 국공채 대비 높은 수익율을 낼 수 있는 채권형 펀드를 찾을 것을 추천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인 국내 공모 인덱스 펀드도 예로 들었다.

또 연 금리 3.2% 수준의 주기연계증권(ELS) 파생형 상품도 거론했다. 김 부부장은 이 상품은 최저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거치식), 최장 만기 3년으로, 6개월 단위로 총 6번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단 이들 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자산관리 전문가는 고령층을 위한 예금상품은 올해도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은 최근 고령층을 위한 사회공헌상품으로 ‘어바하예탁금’을 출시했다. 상품 가입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 자녀이다. 1년 계약기간 동안 50만원 이상 예탁하면 헬스케어에 월 2회 전화안부서비스까지 받는 한편 상해사망 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일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2019년 귀속분 기준

과세 요건	소유 주택 수 (부부 합산)	월세 소득	보증금 소득
1주택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비과세	비과세
3주택	과세	과세	과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소형주택 제외)

과세 방법

수입금액	과세 방법
2천만원 이하	종합·분리과세 중 선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자료/국세청 | 연합뉴스

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통보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국세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13억 금융사기 예방 정보공유·교육 진행 등 성과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해 13억 원에 달하는 전자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은행의 보이스 피싱 예방 성과는 2017년 총 64건·3억2000만원, 2018년 총 84건·7억1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지난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우수 영업점 직원 5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들은 7700만 원에 달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은행은 쌍촌복지관, 효령노인복지재단, 북구노인복지회관, 상록실버회관, 바라밀실버하우스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상무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최근 사기범들은 출금사유, 송금인인적사항 등을 미리 파악해 은행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준비한다”며 “다양한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비해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예방사례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혜택 빵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세요”

금리 3.3%·비과세 혜택 등
가입연령 등 가입 요건 완화
광주·전남 1만5000명 가입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청년이 ‘내 집·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광주·전남 가입자가 1만5000명에 육박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광주 8126명·전남 6006명 등 1만 41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7월 국토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 뒤 2년 4개월 만에 전국에서 26만1943명이 가입했다. 광주 지역 가입자는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많고, 전남 가입자 수는 13번째다.

이 상품은 청약 가능과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3.3%의 높은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500만원)까지 주는 장점으로 청년층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일반 청약통장처럼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주택청약통장의 이자율 연 1.8%(2년 이상 가입 시)에 우대이율(1.5%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과 혜택

나이	만19~만34세(병역기간인정)
주택여부	무주택인 세대주/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소득	연 3000만원 이하(근로사업기타)
금리	원금 5000만원까지 연 최대 3.3%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원 및 월급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최대240만원)의 40%까지

(자료: 국토교통부)

인트·최대 5000만원)을 덧붙여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지난해 1월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가입 연령은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으로 확대됐다.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입자가 매월 20만원씩 10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청약통장은 약 2580만원이 쌓이지

만, 청년 우대형 통장은 약 2730만원으로 약 150만원 정도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 12월 말까지만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금융수탁은행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조건이 맞으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NH농협생명 광주총국, 고령화 맞춤 보험 3종 출시

당뇨·암보험 등 13일 판매
강형구 본부장 1호 가입

NH농협생명 광주총국은 최근 고령화 추세에 맞춰 보험상품 3종을 출시하고 ‘1호 가입행사’를 진행했다.

9일 NH농협생명 광주총국은 지난 8일 강형구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이 새해 출시된 신상품 3종에 대해 1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당뇨케어NH건강보험’, ‘허리NH직추보험’, ‘하나만묻는NH암보험’이며 오는 13일부터 판매된다. 이날 1호 가입행사와 함께 농협 보험담당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상품설명회를 진행했다. 최순동 총국장은 “이번에 출시된 상품



강형구(오른쪽) 농협 광주본부장은 지난 8일 NH농협생명 신상품 ‘1호 가입자’가 됐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들이 농협 조합원과 농민의 보장자산 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